시·군 주도 R&D 사업 발굴 지원

전남도 13개 시·군 24개 과제 모집
여수 의료기기 지원센터 등 5개 선정
기획연구·정부사업 반영 등 지원

전남도는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시·군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협력해 과학기술 R&D로 미래사회 및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계획한 사업이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R&D 이슈 발굴 및 기획·관리 등의 경험 부족으로 R&D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기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13개 시·군으로부터 24개 과제를 모집했다. 이 중 시·군의 산업특성, 비교우위 자원 등에 기반을 둔 지역혁신 R&D사업 발굴을 희망한 5개 시·군 총 5개 사업을 선정하고 각각 기획비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여수시 '실버헬스케어 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 ▲구례군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산수유 등 기능 연구 및 치유식품산업 육성' ▲해남군 '단호박 기능성 소재 연구 및 전분 가공 기술 실증시험센터 구축' ▲강진군 '농촌 맞춤형 공기정화기술 및 플랫폼 개발' ▲영광군 '스마트양식 융복합 기자재의 실증 신뢰성 평가 센터 유치를 위한 기획' 등이 추진된다.

1월 중 각 과제별 기획연구기관이 선정되면 시·군 주도하에 4개월에서 6개월간 기획연구가 추진되며, 오는 2022년 정부 R&D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순선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 R&D 역량 강화와 전남 R&D 투자 제고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선정된 과제가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으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전남도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유기질 비료지원 국비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곡성군과 진도군 등 2개 군이, 농협 중에선 광양농협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토양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평가는 토양유기물함량을 비롯 토양산성도(pH), 토양검정시비처방 건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품질점검실적, 토양환경 개선 자체사업 추진실적 등 7개 지표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와 친환경비료 교육, 비료 품질 점검, 토양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같은 결과로 친환경비료 공급확대 및 사업성 제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을 차지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20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시·군 및 유관기관, 농업인들이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조선업계 대상 '맞춤형 환경컨설팅'

환경공단 등 4개기관 합동 지원반
25개 업체 비산 저감기술 등 안내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영암 대불산단 내 중소·영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시작했다. 〈사진〉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 조선산업이 다수 입주한 대불산단내 입주기업들은 지속된 경기 불황과 함께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으로 선박 도장시설의 강화된 규제에 맞춰 올해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해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화된 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4개 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컨설팅 지원반을 꾸렸다.

지원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환경컨설팅을 추진했으며, 대불산단 영세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과 유선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체들은 선박 도장시설에서 발생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재정적 지원과 기술력 검증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지원반은 최적화된 비산배출 저감기술을 안내하고 방지시설별 장단점 비교, 타지역 설치 사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환경컨설팅 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공정 진단과 대안 권고 등 지원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달라진 제도·시책, 환경 법령 준수사항, 지원사업 등이 수록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책자도 발간해 사업장에 배부했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대불산단 내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6차산업인증품 '네이버 쇼핑라이브' 판촉

2월 4일까지…시중가보다 20% 할인

전남도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 쇼핑라이브 부티판다'에서 전남 6차산업 인증제품에 대한 판촉에 나선다. 〈사진〉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코로나19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전남도 내 7개 시·군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우수 제품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판촉은 ▲1월 11일 강진 착한한우를 시작으로 ▲1월 15일 나주 곰탕 ▲1월 20일 장성 깻잎김치, 순천 갓김치 ▲1월 26일 담양 죽순떡갈비 ▲1월 28일 광양 매실, 고흥 유자 ▲2월 4일 앵콜방송 등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유명 쇼호스트인 개그우먼 조혜련, 변기수를 비롯 방송인 홍진희, 김성수가 출연, 남도의 특색있는 먹거리와 제품별 다양한 스토리를 소개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중 전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서도 네이버 쇼핑라이브에 출시된 행사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6차산업 인증경영체는 여수 갓, 광양 매실, 해남 고구마 등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조·가공, 유통·체험 등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다.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지난해 소방출동 28만여건

화재 건수·사상자 전년비 줄어

전남소방본부가 지난 한해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57만6458건의 신고를 접수해 28만6873건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 현장 활동은 화재 2472건을 비롯 구조 3만5877건, 구급 7만5258건, 오인신고·미이송 등 기타 17만326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된 총 9215건의 화재신고 중 실제 화재는 2472건으로, 사망 22명, 부상 98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29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과 비교해 화재 173건(6.5%), 사상자 4명(사망 1, 부상 3)이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26억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공장 및 창고시설 등 산업시설의 피해가 주요인으로 확인됐다.

화재원인의 경우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1376건(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536건(21.7%), 기계적 요인 241건(9.7%), 원인 불명 화재 180건(7.2%), 기타 139건(5.7%) 순이다.

아울러 지난해 3만5877건의 구조출동에 나서 4275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총 건수 중 자연재해 등 생활안전구조 출동이 1만9401건, 교통·승강기 사고 등 일반구조 출동은 1만6476건을 기록했다.

2019년 대비 출동은 261건, 인명구조는 27명이 증가한 결과로, 주된 요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소방은 지난해 총 7만5258건의 구급현장에서 7만7148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이송했으며, 구급 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응급처치·의료지도 등 소방안전서비스 3만7547건을 위급한 도민에게 제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립 전남학숙, 올 신규 입사생 117명 모집

전남 출신 대학생이 광주 등에서 유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인 도립 전남학숙이 29일까지 올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17명으로 남자 92명, 여자 25명이다.

전남학숙은 광주에 인접한 화순군에 위치해 있으며,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세탁실, 운동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함께 1일 9회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

지원 자격은 광주 및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학숙에 문의하거나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탈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XA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RE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